

제6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예술 꿈나무 대장정 마무리

개인 22명·단체 2팀 최고상 수상 전국 학생 4000여명 참여 열띤 경연

광주일보사(회장 김여송)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제69회 호남예술제'가 최고상 시상식을 끝으로 3개월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956년 첫 대회를 개최한 호남예술제는 전국 대표 종합문화예술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그동안 한국예술계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특히 광주일보사는 장간 3년 후 호남예술제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거르는 일 없이 매년 경연을 개최했다.

'제6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이 30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광주서 서구 삼촌동)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미술, 무용 등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와 가족,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24일 발레 경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올해 예술제는 지난 5월 2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 등에서 진행됐다.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진 경연에는 전국에서 4000여 명 학생들이 참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경연이 열리지 않았던 미술, 작문을 비롯해 합창·잡주 등 단체 부문도 4년만에 정상 진행됐다.

올해는 미술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최지우 군

(불로초1)과 시 부문 최고상 류시우 양(운천초4), 산문 부문 이아윤 양(광주송원초4) 등 22명의 개인 수상자와 국악 기악합주 단체상을 수상한 여도초(강서우 외 29명), 관현악 합주 광주송원초(최지우 외 76명) 등 단체 2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로 69회를 맞은 호남예술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남도의 대표 예술제다"며 "지열한 경쟁을 뚫고 최고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이면 호남 예술제는 70주년을 맞는다"며 "앞으로도 광주일보사는 예술 꿈나무들 발굴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시절부터 개최해 온 호남예술제는 지금까지 60여 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예술 기량을 뽐냈다. 수상자들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젊은 예술인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파가니니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호남예술제가 배출한 예술가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최고상을 받았다.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초중고 시절 최



제6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이 30일 오후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상을 5차례 수상하는 등,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으며, 이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 김기민 등 제자들을 육성했다. 이밖에 고재중·양성우 시인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며, '미스

트롯' 우승자 송기인도 광주예고 재학 시절 국악 부문에 출전한 바 있다.

이날 미술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김태연(광주송원초3) 양은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을 떠올려 광주

패밀리랜드의 기차, 관람차를 그렸는데 뜻밖의 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동생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라서 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우리동네 샘물 우리집안 장독

8월 27일까지 비움박물관

옛날에는 마을마다 샘터가 있었다. 공동 우물터인 샘터는 마을 소식은 물론 안부까지 전해지는 공간이었다. 샘터에는 늘 아침 일찍 물을 길러 온 아주머니들이 있었다. 커다란 독을 이고 물 담바구니를 들고는 우리의 옛 어머니들의 모습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 헌신이 담겨 있었다.

또한 무더운 여름날 샘터에서 바가지에 길러 마시는 물은 무엇에 비할 바 없는 시원함을 선사했다. 샘터에 가 한 바가지의 물을 마시면 충분히 목을 축이고 갈증을 풀 수 있었다. 샘터, 샘물과 연관된 집안의 도구로 물동이와 씨간장독을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들은 샘물을 길러 장을 담고 그 장독에 보관했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에서 오는 8월 27일까지



비움박물관 전시실에 전시 중인 다양한 물동이와 씨간장독. <비움박물관 제공>

지 열리는 기획전시 '우리 동네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우리 집안 장독에서 우리나라 장맛'전은 오래 전 향수를 환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네 물맛을 담아내던 물동이와 씨간장독을 볼 수 있다. 동네 여인들은 장 담그는 계절이면 대대로 물러받은 씨간장독 장을 씻어 삼아 장을 만들었다. 그 때문에 여인들은 장독대를 오

가며 씨간장독을 애지중지 관리했다.

한편 이영화 관장은 "장맛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고 물맛을 보면 그 동네 인심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이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옛사람들이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미술상에 조유나 작가 선정...12월 개인전

2024년 광주미술상에 조유나 작가가 선정됐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오건택·운영위)는 최근 올해 광주미술상에 조유나 작가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조 작가는 작가 발표에서 초기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모노톤에서 유색과 빛의 탐구로 이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대사회 타인의 시선과 맞물린 현대인들의 내적 압박 외에도, 근래 들어 광주의 정체성인 빛과 자아를 결합시킨 실리온 네온의 조형 작품들을 제작하는 과정 등도 언급했다.

조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미술계 선배들이 주는 상이기에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상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작가에게는 개인전(12월 예정)을 위한 창작 활동비 및 도록제작비, 광고비, 전시운영 인건비 등 1000만원 상당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또한 전시공간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작가와 대화



조유나 작가

의 장도 함께 지원되며 만 45세가 되면 광주미술상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본심에 오른 백상욱과 윤성민에게도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2인전 지원을 받게 된다.

운영위는 최근 서류심사와 포트폴리오 심사와 포토폴리오 심사를 통한 3배수 후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듣고 무기명 투표로 수상 작가를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30주년을 맞은 '광주미술상' 의미를 환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념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위회 오건택 이사장은 작가들이 "어려운 창작 여건으로 작품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광주미술상이 계기가 돼 남도미술과 한국미술을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스크린으로 만나는 공연 실황 '아르코 라이브'

예술위, 전국서 진행...3일 '민요첼로' 등 CGV 순천신대점 상영

스크린으로 만나는 공연 실황 '아르코 라이브'가 라인업을 공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아르코 라이브'를 오는 7월까지 전국 CGV 상영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권에서는 CGV 순천신대점(해평면 해광로 199)에서 7월 3일부터 음악 '민요 첼로', 7월 10일 뮤지컬 '이슈 이야기', 7월 17일 무용극 '토끼는 어디로 갔나?'를 각각 일주일간 상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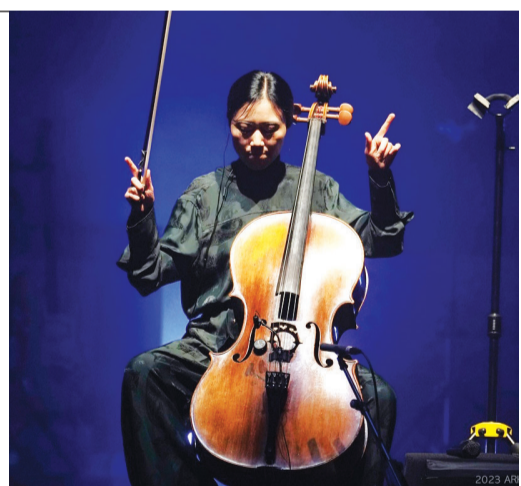
'민요 첼로'는 '녹두꽃', '파랑새' 등 우리나라 민요들을 다섯 대 첼로와 밴드도 재해석한 작품이다.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임이환이 국악·타악 리듬에 재즈 화성을 결합해 동서양의 선율을 융화시켰다.

이어 10일 개봉작 '이슈이야기'는 '이슈우화'에

서 모티브를 얻었다. 2600년 전 그리스 사모스섬의 노예로 살던 이야기꾼의 설화를 극화해, 서사의 구비전승에 대해 고찰한다. 창작진과 함께하는 스페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토끼는 어디로 갔나?'는 안무가 허성임, 댄서 니드컴퍼니 안무가 그레이스 엘렌 바키가 12년 동안 연구해 만들어 낸 무용극이다. 토끼의 몸짓을 안무화했으며 미니멀한 무대 장치와 오브제 등이 돋보인다.

문예위 극장운영팀 심정훈 대리는 "수도권에서 주로 관람할 수 있던 공연들을 전국 극장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며 "공연을 이미 관람했던 관객들은 재연의 감동을, 물리적 한계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이환의 음악극 '민요 첼로' 한 장면. <문예위 제공>

관람이 어렵던 관객들은 초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35회 광주학생연극제' 문정여고 연극팀 최우수 작품상

문정여고 연극팀이 '제35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광주학생연극제가 주관하는 '광주학생연극제'가 최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렸다.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박근형 작 '빨간 버스'는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고생 '세진'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그린 작품이다. 지도교사는 오혜연, 예술감사는 이정진이 맡았다.

낙엽만 굴러도 까르르 웃어버리는 평범한(?) 여고생 '김세진'은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맹랑하게 살아간다. 주변에서 인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세진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점

차 주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야기.

광주학생연극제 심사위원 정은희(배우·화순제일중 국어교사) 씨는 "빨간 버스"는 학생 배우들이 각자 맡은 역할의 캐릭터성을 적절히 구축했으며, 표현 양식과 템포감이 개성적인 작품이다"며 "직설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작품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전달 돼, 심사하는 동안에도 무대 위에서 직접 오듯 긴장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최우수 작품상 수상 팀은 오는 8월 펼쳐지는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본선 무대에 광주를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